

# 무주 토종다래 '주목'

## 산림과학원과 신제품 현장설명회 개최

무주군은 20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과 농가포장에서 토종다래 신제품 현장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선발 육성한 토종다래 신제품새한과 대상, 철보 및 오담센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들과 한국다래연구회원, 무주토종다래연구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기 박사는 토종다래 신제품을 소개하고 보급 현황을 공유했으며, 경상태 김진교 교수는 토종다래의 유속 특성과 저장성에 대해, 충북대 이미경 교수는

토종다래의 유용 성분 등에 대해, (주)식탁이 있는 삶 김재훈 대표는 토종다래 유통현황에 대해, 그리고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이종원 담당은 무주군 토종다래단지 현황을 설명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김미중 과장은 "특새 효자작목으로서의 토종다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고소득 산림작목으로서의 토종다래에 대해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토종다래를 알리고 보급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일원에서는 현재 10농가가

2.4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국립산림과학원과 재배기술 이전 협약을 맺은 이후 선발 육종된 대성과 새한 등의 품종이 보급돼 있다.

군은 지난해 1톤 정도를 첫 수확한 데 이어, 올해는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재배·관리기술로 생육상태도 좋아 10~12톤 정도를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 무주토종다래연구회(대표 이상철), (주)식탁이 있는 삶(대표 김재훈)과도 업무협약(MOU) 및 판매 계약을 맺어 판로 확보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한편, 토종다래는 식재 후 5~6년이 지나면 10a당 2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1kg당 1만 원~1만 5천 원에 판매와 직거래 형태로 판매가 가능해 소득유망 작목으로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산림소득작물 육성 박차

## 호두·표고 등 작목별 간담회

무주군은 20일 백운산 생태 숲 교육연구동에서는 무주군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산림소득작물 재배단지 육성 간담회가 개최됐다.

호두재배 농가(1백여 명)들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호두산업 김성국 대표가 강사로 참석해 산림소득사업 활성화 및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에 관한 내용을 비롯한 호두의 생리특성과 전지 전정 등 재배기술, 가공·유통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농가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판매 정보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듣고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호두라는 공감대 하나로 농가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들도 알찬데 만큼 제과 된 무주 호두의 명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정수 군수는 "무주 호두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지만 생산과 수확에 그치는 1차 산업 중심이어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는 늘 아쉬움이



황정수 무주군수가 산림소득작물 재배단지 육성 간담회에 참석해 호두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있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토대로 농가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군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호두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생산과 가공, 유통시스템을 정착시켜 제과 받는 무주 호두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말했다.

산림면적이 전체 면적의 82%로 해발 400m 이상의 고산지역인 무주군은 호두 재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으며, 무주 호두는 품질이 우수하고 호두알이 고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주군 토착재래 품종인 "무풍"은

1983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량 호두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무주군 산림소득작물 재배단지 간담회는 농민(임업인)도 부자되는 무주 만들기 일환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표고와 산양삼, 복분자, 고로쇠 등의 작목에 대해서도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논개의 나라사랑 정신 있는데 노력할 터"

##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김순홍 회장 취임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에 김순홍(72)씨가 취임했다.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장수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최영득 장수군수와 기관단체장, 선양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김순홍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논개님 선양사업을 추진해 온 지 어언 만 16년이 흘렀다"며 "충·의·열의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신 논개님 정신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암 주논개님 선양사업은 모두의 책무이자 숙명"이라며 "주논개님 선양사업이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장수군의 3절인 주논개의 정신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양해도 전 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완주군 청소년 음악밴드 육성 프로그램 '인기'

완주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형성과 음악적능 활동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음악밴드 육성 프로그램'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20일 음악에 대한 꿈과 끼를 가진 중·고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2016 청소년, 완주를 노래하다' 청소년 음악밴드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산고, 고산중, 구이중 등 총 4팀을 선발해 매주 토요일 고산시장 내 청

소년문화공간 및 전주시민문화센터에서 지역의 뮤지션이 멘토가 돼 학생들의 창의적 음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1팀당 3~6명으로 구성돼 있고, 청소년들은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등 악기 연주를 배우며 자신들이 직접 창작곡을 만들어 앨범을 발매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플리시-로 축제 축하 공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만껏 발휘하고 있다.

또한 올해 완주와일드푸드축제 폐막식 공연에도 출연할 계획이다.

현재 청소년들은 1팀당 1곡씩 창작곡을 만들어 앨범 녹음을 진행 중으로 11월중 '공동창조공간 누에'에서 제작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앞으로 음악밴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창의적인 여가선용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고원에서 빛어낸 '진안청자'

## 27일~11월 27일까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진안군은 오는 27일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 군산대학교박물관(관장 박정근)과 공동으로 진안 도토리 증평 청자가마터 조사 성과를 종합하기 위한 특별전시 '진안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전시 개막식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열리며, 전시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두 달 간 진안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고원에서 빛어낸 천년 푸른빛, 진안청자"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천년 전 고원지대인 진안지역에서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도토리 증평 가마터를 중심으로 발굴조사 과정과 성과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전시실에서는 가마터에서 출토된 초기청자, 그릇을 구울 때 덮었던 갑발, 가마의 축조재료인

벽돌을 출토지인 진안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진안 도토리 증평 청자가마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네 차례의 진행된 문화재 조사 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기청자 가마터로, 호남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청자를 생산했으며, 청자의 발생과 전파과정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진안군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진안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를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시와 관련하여 진안 도토리 증평 청자가마터 조사 성과에 대한 학술심포지엄도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진안 문화의 집 마이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무주군, 사회적기업 발굴 나섰다

## 관내 기업 대상 컨설팅 진행

무주군은 20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으로, 이날 교육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정 요건 등을 공유해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무주군 관내에서 방역과 소독, 방호, 여행, 식품, 교육, 광고대행과 식품제조 등을 하고 있는 10개 업체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오승준 연구원과 강병석 연구원이 사회적기업 이해를 위한 개념과 유형,

특징, 사례에 관한 강의를 듣고 1:1 대면 컨설팅을 받으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백선미 일자리담당은 "이번 교육이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전북사회경제포럼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줄여 기업들의 만족도도 크다"고 전했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받고 경영능력 향상과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오승준 연구원과 강병석 연구원이 사회적기업 이해를 위한 개념과 유형,

/무주=전문선 기자



# 무진장소방서, 재난피해 지원행사로 행복 나누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0일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행복 나눔 문화 확산 및 봉사활동으로 희망과 행복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재난피해주민 지원행사를 가졌다.

재난피해(화재·구조·구급) 주민지원 사업은 무진장소방서 직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매일 모금하고 있으며, 무진장소방서는 2016년 9월 현재 구급출동건수는 5593건, 3529명을 이송했으며, 구급수혜자 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5명을 선정하여 현금 250만원(각 50만원) 전달과 열담 및 열담

체크로 건강을 체크했다.

장수군 장수읍에 거주하는 유모(여/48)씨는 지난 3월 17일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하여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출동 및 처치로 소생하여 후유증 없이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생명의 은인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박재균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행사로 재난피해를 당한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나마 재빨리 지원과 희망을 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국립산림과학원

## 완주자원봉사센터, 와일드푸드축제

## 자원봉사자 발대·기본소양교육

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성운 사무국장)는 20일 우석대학교 교양관에서 2016 완주와일드푸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와일드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기본소양교육을 진행했다.

자원봉사단은 1일 150여명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축제 기간 동안 프로그램 진행보조, 축제장 주변 환경정리 및 통역, 행사장 안내 등 축제 전반에 걸쳐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발대식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각자의 의무, 책임감을 다짐으며 축제의 전반적인 내용과 프로그램 등을 공유해 각자 맡은 역할을 숙지,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지식을 익히는 동시에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교육도 받았다.

이성운 사무국장(센터장 직무대행)은 "축제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발대식 참여를 통해 스스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축제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해 완주군을 널리 알리고 축제의 성공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장수 청소년통합지원체제

## CYS-Net 운영위 회의 개최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일부터 20일까지 필수 연계기관 운영위원과 실무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청소년통합지원체제 CYS-Net 운영위원회 및 3분기 실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6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사업과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위기청소년 긴급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지원방법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방법에 대한 사례 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청소년문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신규의료급여수급자 교육

진안군은 20일 신규의료급여수급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교육을 군민자치센터에서 실시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보조제이며 의료급여 분별에 따라

진찰, 치료재료, 수술, 입원,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소득 계층별로 지원 받을 수가 있게 되어 그동안의 수급자에 대한 확실히 지원제도가 4가지 급여제도로 세분화되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경찰, 학교폭력 예방 강의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 19일 장계초등학교(전교생 263명)를 시작으로 장수 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 "아름 없는 우리 학교, 행복한 학교 생활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강의를 실시했다.

이 날 강의에서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117신고 방법 및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요즘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작만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경험담이나 의견을 듣고,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생생한 소통 강의를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